

2023학년도 수능대비 Last Pray 동아시아사 모의고사 1회 정답

문항번호	정답	배점	출제소재
1	①	2	양사오 토기
2	③	2	홍노
3	④	3	명 홍무제(주원장)
4	⑤	3	전통 신앙과 결합한 동아시아의 불교
5	①	3	도요토미 히데요시
6	③	3	의화단 운동과 러·일관계
7	②	2	원 쿠빌라이 칸
8	②	2	시헌력 제정을 주도한 아담 샬
9	③	2	사회 진화론
10	⑤	3	조선 후기 동아시아의 무역 관계
11	②	3	베트남 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정세
12	④	2	태평천국 운동
13	①	3	남송
14	⑤	2	북위의 호한융합 정책
15	③	3	타타르 알탄 칸의 베이징 포위
16	①	3	난징조약
17	⑤	2	요코하마
18	④	2	미·일 안보 조약
19	④	3	돌궐
20	②	2	록히드 사건의 영향

◎ 총평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 과목의 시험지를 분석하여,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적절한 지업을 배치하여 변별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사료해석과 그 속에 녹아 있는 시대 상황을 묻는 2022학년도 수능을 토대로, 사료해석과 연표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수능의 각 단원별 평균 출제 비중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국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문항 및 사료의 뉘앙스를 이용한 추론이 필요한 문제도 일부 수록하였다. 모든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최근의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를 기반으로 출제하였고, 교육청 기출 및 과년도 연계교재 문항에 대한 변형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문항들을 소화한다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등급컷		예상 오답률 Top3	출제 및 검토
1	48	18번	★ 마지막기도 ★ - 교원대 역사과 - 2022/2023학년도 수능대비 늘잠이 모의고사 동아시아사/세계사 검토 - 2022학년도 수능대비 동아시아사 모의고사 6회분 배포
2	45	10번	
3	42		
4	39	13번	

★ 문항 해설 ★

※ 문항별로 표기된 난이도는 상대적입니다.

1번 문항 (난이도 下)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토기’, ‘표면에 물감 등을 사용하여 무늬를 그려 넣음’ 등의 내용을 통해 대화의 소재가 되는 유물이 양사오 문화의 토기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유물들은 번호 순서대로 빗살무늬 토기(한반도), 홍산 문화의 토기(랴오허강 유역), 조몬 토기(일본), 허무두 토기(창장강 하류 지역)이다.

2번 문항 (난이도 中)

‘대군에 쫓겨 북방으로 쫓겨났다’, ‘동호와 월지의 강세로 위축’, ‘목돌의 치세에 장성 이북 통합’ 등의 내용을 통해 (가) 민족이 흉노임을 알 수 있다(목돌=목특이다. 이 내용은 금성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흉노의 목돌선우는 백등산 전투에서 한(고조)의 군대에 승리하였다.

후주를 멸망시킨 것은 (북)송의 태조 조광윤에 대한 설명이다. 쿠릴타이를 개최한 것은 몽골족에 대한 설명이고, 서하와 군신 관계를 체결한 것은 (북)송, 금 등에 대한 설명이다. 남면관제로 농경민을 통치한 것은 거란(요)에 대한 설명이다.

3번 문항 (난이도 中)

‘농민군’, ‘백련교’, ‘금릉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됨’ 등의 내용을 통해 (가) 인물이 명 태조 홍무제(주원장)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축출하였다.

절도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은 송 태조 조광윤 등에 대한 설명이고, 장거정이 추진한 개혁을 후원한 것은 명 만력제에 대한 설명이다. 원강에 대규모 석굴 사원을 건설한 것은 북위에 대한 설명이고, 오삼계를 비롯한 삼번 세력을 진압한 것은 청 강희제에 대한 설명이다.

4번 문항 (난이도 下)

‘철성각과 산신각’, ‘하치만 신상’ 등의 내용을 통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전통적 신앙과의 결합을 추구한 동아시아 불교’임을 알 수 있다.

5번 문항 (난이도 中)

‘외국 상인으로부터 불을 뿜는 막대기(조총)를 사들여 다케다 가문과의 전쟁에서 승리’ 등의 내용을 통해 제시문의 영주는 오다 노부나가임을 알 수 있고, 그의 뒤를 이어 혼란의 시기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뉘앙스를 통해 밀줄 친 ‘사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임을 알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센고쿠(전국) 시대를 통일하였고,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조선과 기유약조를 체결한 것은 에도막부 및 쓰시마번이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는 세력 간에 벌어진 전투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리로 끝났다. 에도를 근거지로 막부를 수립한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이다. 교토와 요시노의 조정을 통합한 것은 남북조 시대의 종식이며,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대한 설명이다.

6번 문항 (난이도 上)

산둥에서 왕조를 받들어 서양을 몰아내자는 봉기(의화단 운동)가 발생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주에 군대를 주둔했다는 점을 통해 (가) 국가는 러시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을 체결했다는 점 등에서 (나) 국가는 일본임을 알 수 있다. 두 국가는 러·일 전쟁 당시 만주의 봉천에서 전투를 벌였다(봉천 전투는 교과서 및 연계교재의 러·일 전쟁 지도에 수록되어 있다.)

카이로 회담에 참가한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이다. 상하이에 조계를 설치한 것은 영국, 프랑스 등이다.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체결한 것은 청과 일본에 대한 설명이다. 산둥의 웨이하이웨이에서 충돌한 것은 청·일 전쟁 당시 청과 일본이다(웨이하이웨이 전투는 교과서 및 연계교재의 청·일 전쟁 지도에 수록되어 있다.).

7번 문항 (난이도 中)

편흥다오는 몽골(원)의 침입 당시 바익닥강 전투 등에서 쿠빌라이 칸이 파견한 몽골군에 승리하였다. 쿠빌라이 칸은 고려와 연합하여 일본을 2차례 침략하였다.

금을 정복한 것은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에 대한 설명이고, 호라즘을 정복한 것은 칭기즈 칸에 대한 설명이다. 팔기제는 만주족(청)의 제도이다. 쿠빌라이 칸은 카라코룸에서 대도(베이징)로 천도하였다(케를렌강 상류지역에서 카라코룸으로 천도한 것은 오고타이 칸이며, 이 내용은 교과외이다.).

8번 문항 (난이도 中)

청의 새 역법이라는 점에서 (가)은/는 시헌력임을 알 수 있다. 시헌력의 제정을 주도한 것은 예수회 선교사였던 아담 샬이다. 아담 샬은 청에 불모로 잡혀왔었던 소현세자와 교류하였다.

기기도설은 1627년 예수회 선교사 테렌즈가 16세기까지의 서양기술을 최초로 중국에 소개한 과학서이다. 홍이포를 중국에 전파한 것은 네덜란드이다. 서광계와 함께 기하원본을 간행한 것은 마테오 리치이다. 에도 막부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것은 영국의 윌리엄 애덤스(미우라 안진)이다.

9번 문항 (난이도 中)

경쟁을 문명이라고 보았다는 뉴앙스를 통해 (가) 사상이 사회 진화론임을 알 수 있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엔푸는 천연론을 저술하였다.

명말청초의 학자인 고염무, 황중희 등은 경세치용 학문 및 고증학을 연구하였다. 대의각미록은雍正제의 주도로 편찬되었고, 대의명분론과 화이관을 드러낸 책이다. 해체신서의 간행을 계기로 발전한 것은 난학이다. 사회 진화론은 자유 민권 운동을 비판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

10번 문항 (난이도 上)

‘양국의 매매가 점차 성행하고 있다’, ‘책문 아래에도 큰 마을이 만들어져 매번 개시 때가 되면 베이징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등의 내용을 통해 제시문의 내용이 조선 후기 청과의 무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부산 초량의 왜관에 일본 상인들이 거주하였다.

중국에서 보초가 발행되어 사용된 것은 원~명초의 일이다. 일본(가마쿠라 막부)는 송의 동전을 대량 수입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삼포(부산포, 영포, 제포)에 왜관을 설치하고 일본인의 무역을 제한하였다. 일본이 중국에 감함 무역의 재개를 요구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강화 협상의 내용이다.

11번 문항 (난이도 中)

‘광에서 선언’, ‘아직 끝을 내지 못한 전쟁’, ‘아시아 각국의 일은 아시아 각국이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 등의 내용을 통해 제시문의 선언이 닉슨 독트린(1969)임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밑줄 친 ‘이 전쟁’은 베트남 전쟁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전쟁의 종결이 1975년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오키나와 반환은 1972년에 이루어졌다.

석유 파동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는데, 1차는 1970년대 초에 발생하였고, 2차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발생하였다. 중국의 인민공사 해체는 덩샤오핑이 집권한 1970년대 말부터 진행되었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 캄보디아 내전에 개입하였다. 타이완은 1979년 미중 국교 수립(미중 수교) 직후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하였다.

12번 문항 (난이도 中)

‘농지를 똑같이 분배’, ‘남녀가 평등한 상제의 나라 건설’ 등의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새로운 군대’가 태평천국군임을 알 수 있다. 태평천국군은 아편 흡연과 전족, 축첩 등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문화 운동은 신해혁명 이후 천두슈 등의 주도로 일어났으며,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부청 멸양을 내걸고 봉기한 것은 의화단 운동이다. 변법자강 운동 당시 신군이 편성되었으나, 태평천국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경자유전의 토지제도를 시행한 것은 중국 공산당 등에 대한 설명이다(중국 공산당이 1947년 발표한 중국 토지법 대강에 드러나 있다.).

13번 문항 (난이도 上)

‘황제가 명을 내려 임안으로 호송’, ‘정강의 치욕을 씻고’ 등의 내용을 통해 (가) 국가가 남송임을 알 수 있다. 남송의 주희(주자)는 백록동 서원을 재건하였다.

회관은 명청대 동향 상인 조합이 설립한 것이다. 왕안석의 신법 추진은 북송때의 일이다. 동시는 당나라 장안성 안에 설치된 2개의 큰 시장(동시, 서시) 중 하나이다. 요(거란)와 형제 관계를 체결한 것은 북송이다.

14번 문항 (난이도 下)

눈을 크게 뜨고 자료를 잘 보자. 가장 적절한 주제는 ‘한족 여성과의 혼인으로 보는 북위 황실의 호한 융합’이다(이 자료는 여러 교과서 및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다.).

15번 문항 (난이도 中)

제시문만 봐도 16세기 타타르 알탄 칸의 베이징 포위임을 알 수 있다.(1550) 16세기 조선에서는 농민층의 동요로 군에 복무할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조선은 농민에게 부과하던 군역 대신 군포를 받아 군대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였다(2022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62쪽 자료 플러스 연계이다.).

성리학은 가마쿠라 막부 때 일본에 전래되었다. 데라코야는 에도 막부가 서민 교육을 위해 설치한 교육 기관이다. 명 멸망 이후 조선에서는 조선이 유일한 중화라는 조선 중화주의가 확산되었다. 산둥 반도의 적산에 법화원이 설치된 것은 당나라 때의 일이다.

16번 문항 (난이도 下)

‘임칙서의 아편 몰수를 빌미로 영국이 쳐들어왔다’, ‘특권을 상실한 공행’, ‘막대한 배상금 지불’ 등의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조약’이 난징 조약(1842)임을 알 수 있다. 난징 조약으로 인해 청은 영국에 홍콩을 할양하게 되었다.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1895)으로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하였다. 다낭 등 3개의 항구(다낭, 바랏, 광옌)를 개항한 것은 제1차 사이공 조약(1862)이다. 크리스티교 포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텐진 조약(1858), 제1차 사이공 조약 등이다.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한 것은 텐진 조약이다.

17번 문항 (난이도 中)

상하이에서 바다를 건넜다는 내용을 통해 중국의 도시는 아님을 알 수 있고, 수도와 연결된 철도가 있었던 것을 통해 인천 또는 요코하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이 쓰인 시기가 1896년이라는 점으로 보아 요코하마임을 알 수 있다(경인선은 1899년 개통). 요코하마에서는 일본 최초의 일본어 일간지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발행되었다.

긴자 거리가 조성되고 아주 화친회가 조직된 것은 도쿄이다. 황성 만들기 사업이 추진된 것은 한성이다. 미·일 화친 조약으로 개항된 것은 시모다, 하코다테이다.

18번 문항 (난이도 上)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직후 체결된 조약이며 미군이 일본에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내용을 통해 자료의 조약이 미·일 안보 조약임을 알 수 있다. 미·일 안보 조약은 1951년 체결되어 1960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1950년대에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추진하였다.

시사 군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이 관리하다가 1974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 후 영유하고 있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을 발표하여 장기 집권하였다. 극동 군사 재판은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경찰 예비대는 1950년 창설되었다.

19번 문항 (난이도 中)

‘유연에 이어 몽골 초원에서 흥기’, ‘당 고조가 신하를 청함’, ‘당 태종에게 복속’ 등의 내용을 통해 (가) 국가가 돌궐임을 알 수 있다. 돌궐은 수로부터 안의, 의성공주 등 화번공주를 맞이하였다.

돌궐은 북주·북제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막부가 정치적 실권을 행사한 것은 일본 막부 시대이다. 송첸캄포왕 때 전성기를 이룬 것은 토번이다.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당에 대한 설명이다.

20번 문항 (난이도 中)

‘록히드사가 항공기 판매를 위해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일어난 일본 정부의 부정부패 사건’은 록히드 사건(1976)이다(록히드 사건은 다양한 예가 있지만 동아시아사 교과 내의 록히드 사건은 일본의 경우 하나이다.). 록히드 사건 이후 일본 국민들은 자유민주당(자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부패 사건과 경제 침체로 자민당이 의회의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면서 마침내 1993년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시기가 꽤 차이하지만 영향을 준 것은 맞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정답이 된다.).

합영법은 북한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1984년에 제정한 법령이다. 총통 직선제 개헌은 1980년대 말 타이완에서 이루어졌다.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통합된 것은 55년 체제 시작 전의 일이다(일본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하자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자유민주당으로 통합되었다.). 농업 등 4개 부문(농업, 국방, 공업, 과학 기술)의 현대화는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의 목표이다.

♥ 수고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마지막기도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전에 배포했던 모의고사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원래 문항을 신규 제작하여 수록할까도 생각했었지만 제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올해 초에 제작해 두었던 모의고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풀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이 수능 동아시아사에서 고득점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끝에서
마지막기도